

실업뉴스

The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News
2019년 12월 18일 수요일 제791호



협회 단독으로 지난 12월 5일에 정부여당 핵심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비어와인 캠페인을 벌였다. 친목 다지기 차원에서든 큰 성과를 확인한 행사였으며 협회의 대외 위상을 실감했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일치된 소감이었다. (사진은 더그 포드 수상 의정당당 월 보우마 의원과 의사당 입구에서 단체사진을 찍은 모습, 관련 기사 12면)



www.okba.net Publisher : Jae Gyun Shin / Publication Mail Agreement No : 41140510
Return Undeliverable Canadian Address to :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169 The West Mall, Etobicoke, ON. M9C 1C2 Tel.(416)789-7891 Fax.(416)789-7834

LOTTO 649 SuperDraw

12월 21일 돌아옵니다!

\$1백만 보장 상금 5개

그리고 잭팟

복권 단말기 배너를 인쇄하여 게시하십시오.
모든 고객에게 \$1 백만 보장 상금 5개 추첨을 광고하십시오!



OLG MYSTERY SHOPPING

만 18~22세 손님들에 의한 월례 미스터리 쇼핑은 소매점에서의 성공적인 ID25 준수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스터리 쇼핑은 온타리오주 전역에서 지속적으로 시행됩니다.

손님에게 나이가 몇인지, 또는 신분증이 있는지 묻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손님이 신분증을 제시하여 만 18세 이상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정중하게 판매를 거절해야 합니다.

- 9월에는 32%의 소매업자가 미스터리 쇼퍼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미스터리 쇼핑에서 불합격한 소매업자는 **\$75 이상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 고객에게 OLG 복권/상품을 판매하면 AGCO로부터 복권 단말기 정지 및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AGCO 면허 갱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Play. Smart
Knowledge you can bet on.



OLG Ontario's
Lottery &
Gaming

■ OKBA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

- OKBA 회장 : 신재균 (Jae Gyun Shin)
OKBA 부회장 : 송명현 (Myeong-Hyeon Song)
- 홍보팀 : 실장 김광일 (Ted Kim) tongilisys@yahoo.com
- 사업개발팀 : 이주녕 (Brian Lee) brianjn1108@okba.net
- 회계팀 : 김세환 (Justin Kim) accounting@okba.net
- 디자인팀 : 현미영 (Mimi Hyun) mimihyun@okba.net
- 본부협회 : Tel (416) 789 - 7891 / Fax (416) 789 - 7834

- 이사회 : 이사장 신영하 / 부이사장 김대용
- 감사위원회 : 류승진 / 이만석 / 장육용
- 분과위원회 : 장학 분과 / 회칙 분과 / 특별사업 분과
상벌분과 / 선거관리 분과

- 지구협회 : <광역 토론토 지구협의회>
(ABC 순) Etobicoke 회장 이두승 (416)895-1277
Newmarket 회장 금동진 (905)836-6429
North York 회장 방성덕 (416)221-7091
Peel 회장 이수봉 (905)813-1333
Richmond Hill 회장 김대용 (905)471-8079
Scarborough 회장 엄종호 (416)759-4503
Toronto East 회장 김종범 (416)363-9404
Toronto West 회장 김재숙 (416)975-0365
Weston & York 회장 조용상 (416)604-3116

- <남서부 지구협의회>
Brant County 회장 이효영 (519)442-4143
Halton & Hamilton 회장 오재근 (905)825-8373
London 회장 오세경 (519)432-6672
Niagara Falls 회장 김홍기 (905)354-1313
Waterloo 회장 최상겸 (519)579-8130
Windsor 회장 윤문성 (519)326-1832

- <동북부 지구 협의회>
Durham 회장 이현식 (905)579-2500
Huronian 회장 배종민 (705)436-2248
Kingston 회장 이강정 (613)967-9998
Owen Sound 회장 허창훈 (519)323-4311
Peterborough 회장 이경석 (905)373-0569

■ KBA 협동조합 ■

- KBA 운영이사장 : 신영하 (Youngha Shin)
KBA 부이사장 : 심기호 (Kenny Shim)
- KBA 총괄부장 : 권혁선 (Hyuk Sun Kwon)
- KBA 사무장 : 배 줄리아 (Julia Bae)
- KBA 협동조합 사무실 : Tel (416) 789 - 7544
Fax (416) 789 - 5013
- KBA 협동조합 매장 : Tel (416) 867 - 1444
- KBA 운영이사(가나다순) : 김대용 / 류승진 / 백사열 / 송명현
신영하 / 신재균 / 심기호 / 허창훈
- KBA 감사 : 이만석 / 장해민



www.okba.net
www.okbacanada.com

온라인을 통해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C O N T E N T S

04 - 09 / 히트 신상품 17選

10 - 11 / 조합 심기호 부이사장, 새 이사장 선출

12 - 14 / OKBA 정부 여당 단독 로비 성황
퀸즈파크 로비 비어와인 캠페인 화보
협회 웹 주소 변경 예정

15 / 쿠슈타르 역대급 인수작업 진행 중 <18면에 계속>

16 - 17 / 교양 상식 : 3·1운동 100주년, 우리안의 일본 극우

18 / 쿠슈타르 역대급 인수작업 진행 중 <15면에 이어>
토론토 웨스턴 & 욕 지구협회 정기총회 정·부회장 선거
리치몬드 지구협회 정기총회 정·부회장 선거

19 / DIRECTORY

20 ~ 23 / K.B.A. 협동조합 12월 스페셜



알림

본부협회는 12월 24일(화) 오전 근무 이후 휴무에
들어가 내년 1월 2일(목) 업무를 재개합니다.

2019 편의점 히트 신상품 17選

식품 분야 15종, 非식품분야 2종

올 한해 캐나다 신상품 히트작으로 선정된 17개 제품을 소개한다. 선정은 편의점업계 전문지 CSN (Canada Convenience Store News)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두가지 큰 기준을 적용했다고 한다. 첫째가 웰빙이고 둘째가 소비의 편리성이었다. 수많은 출품작을 놓고 소비자 패널을 구성했으며 몬트리얼, 토론토, 밴쿠버 등 주요 대도시에서 각각의 패널들이 심사를 해 최종 선정됐다고 한다. 세부 평가 기준으로는 편리성, 외관, 포장, 성분 등도 포함됐다. 이하 수상작 17개의 간략한 특징을 소개한다. (괄호안은 제조사)

1. SEA STICK (GoodLife Group Inc.)



김을 가공한 주전부리이며 대체 스낵류의 신상품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기존에도 김을 가지고 만든 제품이 있었다. 올리브 기름을 바른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 제품은 도르르 말아서 구워낸 것으로 아무 곳에 서나 이동 중에도 간편히 꺼내 사탕 입에 넣듯 먹을 수 있다. 신선도와 품질은 시간이 지나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삭아삭 씹는 식감이 그만이며 글루텐 프리, MSG프리, 색소프리, 방부제 프리, 트랜스 지방과 콜레스테롤 프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고.

2. Kinder Bueno mini (Ferrero Canada)



금년 1월에 출시된 제품이며 가볍게 입을 즐거이 하고자 초콜렛 캔디 주전부리를 찾는 소비자에게 딱이다. 입에 꼭 들어갈 작은 사이즈가 요즘대 세인데 이를 따랐으며 들고 다니다 먹어도 좋고 함께 하는 사람들하고 나눠 먹어도 그만. 다크 초콜렛, 헤이즐넛 크림, 가볍고 상큼한 식감의 웨이퍼를 섞고 부드러운 우유로 가공한 차별화된 맛과 구성으로 독보적 맛을 자랑하는 프리미엄급 주전부리다.

Expert mortgage advice for:



- Non-Residents
- New Immigrants
- Self-Employed
- Multi-Rental Properties

Mobile Mortgage Advisor
Ken Hyun
416 888-0404
Ken.Hyun@cibc.com



All mortgages are subject to credit approval.

현광환 (한국어로 편하게 상담하세요!)

박효진 (Roland Park) BROKERTeam INSURANCE

Cell (416)985-5287

- 집, 자동차 단체보험
- 상업용 건물, 가게 단체보험
- Beer & Wine 가게 맞춤형 보험
- 프로그램스토어 특별할인보험

Main (905)770-8828
Fax (905)770-8851
roland.park@brokerteam.ca

실업인협회 단체보험



3. BIG BARK ROLLING PAPERS (회사명 동일)



소비자 이용 편의에 주안점을 두고 디자인됐으며 마무리가 마그네틱 부착형이라 매우 편하다. 한 용기에 80장이 들어 있다. 팁도 80개 있다. 가격 경쟁력도 매력이다. 내장형 팁 구조이며 말다가 망치는 일은 거의 없다고 장담한다. 시장에서 이미 소비자 충성도를 확인하고 있다고 한다. 3가지 옵션이 있다. 헵프, 퓨어, 셀렉트(Hemp, Pure, Select). 3종 모두 100% 오가닉 천연 성분이며 클로라인 프리다.

4. tic tac GUM (Tic Tac Gum / Ferrero Canada)



기존 tic tac 민트 제품의 강력한 인기도를 레버리지 삼아 출시한 신제품 'tic tac GUM' 은 신선한 공기 흡입감을 준다. 기존 사이즈나 색상, 모양을 바꿨고 박스안이 비치도록 했다.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춘 시도라고 한다. 요즘 소비자들은 기존의 인기 제품에서 뭔가 달라진 것, 더 편한 것을 추구한다. 특히 천연성분에 목숨거는 지경이라 이런 트렌드의 요소들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한 변신작이다. 변함없는 사랑을 받는 프레쉬 민트, 워터멜론, 스페어민트 3종이 있고 無가당, 無아스파타민을 특징으로 내세운다. 껌 분야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제품이다.

5. Ricola - Extra Strength (Ricola Canada)



캐나다 소비자의 60%가 추가 지출을 감수하고라도 이왕이면 더 건강한 음식을 구입하겠다는 통계를 의식하면서 리콜라가 보다 천연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품질과 지속성을 높인 신제품으로 '리콜라 extra strength'를 선보였다. 각종 인공성분이나 살충성분을 피하는 것은 물론이고 친환경적 원칙을 따른 제조 공정으로 제품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 포켓 사이즈 크기로 무장하고 올해 첫 선을 보인 이 신제품은 리콜라 오리지널보다 멘솔 성분이 3배 이상 강화됐으며 따가운 목이나 거친 기침, 코막힘 등을 시원하게 해소시킬 수 있어 이미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고. 건강미용(health % beauty care)분야에서 선정됐다.

일체형 연동 포스시스템

원슬루션과 함께하면 빠르고, 간편하고, 저렴합니다!

LCBO READY!!

- ALL LOTTERY TICKET SCAN
- DEBIT MACHINE 연동

1SOLUTIONS
DATA CORPORATION



Debit & ATM and POS system

www.1solutions.ca / info@1solutions.ca Toll Free.1(888)554-7355 Korean(ext4) Direct Line.(905) 560-4511. (416)900-7533 Fax.1(888)554-0409

6. Over EZ (EZ Lifestyle)



건강 보조물로 선정된 유일한 신제품이다. 숙취 예방에 도움을 주는 아이디어 상품이며 포장 디자인이 눈길을 끌고 모던해 보이는 이미지가 어필한다. 건강 웰빙 추구 소비자층의 라이프스타일을 충실히 반영한 디자인에 집중했다. 사업으로 자주 술을 마셔야 하는 바쁜 비즈니스맨을 일차 소비자층으로 삼았다고. 음주 강국 한국에서는 이미 수십년 전부터 이런 부류의 제품이 약국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됐고 애주가들도 주전부리하듯이 입에 털어넣고는 했지만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제품이라 틈새시장 제품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이미 이곳 애주가들한테도 인기를 확인했음인지 수십만명의 소비자가 효과를 봤다고 회사측은 주장하고 있다. Ove EZ는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피도 작으니 계산대 앞에 진열하고 제품의 간략한 소개서(원하는 손님이 한장씩 뜯어갈 수 있도록 돼있음)를 함께 진열한다. 술 소비가 많은 시즌에 매출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7. Cheesewich - Colby Jack (Cheesewich Factory)



건강을 의식하는 소비자를 염두에 두고 치즈위치가 각별히 공을 들여 출시했다. 단백질 함유가 기존 제품보다 배 이상 더 많도록 하면서 탄수화물은 줄이고 글루텐 프리 제품으로 만들었다. 간편 식사 대용물로 선정된 유일한 제품이며 앞에서 말한 조건의 간편식사대용품을 만나기는 그리 쉽지 않은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반가운 제품이 아닐 수 없다. 포장 무게도 손에 들고 다니기 매우 용이하게 2.5온스 진공 포장해서 신선도와 맛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고안돼 있다. 치즈위츠 시리즈의 이번 신제품은 고품격 살라미와 두장의 콜비 잭 치즈로 구성된 샌드위치 스타일로 맛도 좋고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식습관을 배려한 것이라고 한다.

8. Huer Sensible Sweets Vegan Bears (Huer Foods Inc.)




올해 3월에 출시된 휴어 센서블 스위트 시리즈의 가장 최신 버전이다. 일명 비건 베어스로 명명된다. 봉지를 기립시키도록 고안됐고 지퍼로 개폐하는 편리성도 돋보인다. 가지고 다니다가 어느때고 먹을 수 있다. 이번 제품은 또 각종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한테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무엇보다 맛이 좋다고. 다이어트하는 사람들도 신경 쓸 필요없이 먹고싶을 때 아무때고 먹어도 좋다고 한다. 캔디류에서 선정됐다. 비건(vegan ; 엄격한 채식주의자) 소비자층을 위한 혼치 않은 주전부리다.

9. Jolly Ranchers Misfits Gummies Tropical Uni-Sharks (Hershey Canada)



기존 줄리랜처 브랜드의 인지도를 레버리지 삼아 출시한 또하나의 시리즈이며 거미(gummy)제품군에서 혁신적인 제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 봉지에 6가지 맛의 6가지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밀레니얼 세대 전반 연령대와 Z세대를 겨냥했다고 한다. 캔디는 충동구매의 대표적 상품이며 특히 편의점 채널에서 청소년 손님을 대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품목군이다. 일반 스위트 캔디류 분야에서 선정됐다.



아담유 합동 법률그룹

Adam Yoo Stigler Nguyen & Associates

각 분야 전문 변호사와 법무사들이 여러분의 법률 문제를 최선을 다해 해결해 드립니다.

교통사고, 개인 손해	교통위반 티켓	형법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교통 사고 후유증에 관한 최대 보상, 낙상, 정부 과실 보상 소송	과속, Stunt Driving, 무보험, 신호 위반, 행소니 등 모든 교통법규 위반	음주 운전, 폭행, 절도, 사기, 마약(Drug) 보석(Bail) 등 모든 형법 위반

- * 형법
- * 소액재판
- * 복권 판매법

- * 가정법
- * 세권, 세입자 분쟁
- * 담배 판매법

- * 민사소송
- * 주류 판매법
- * 회사 설립

* O.D.S.P. 신청(Ontario Disability Support Program)
1년 이상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시 청구 가능.

“강력한 실력, 오랜 경력, 섬세함으로
모든 법률 문제 해결”

변호사 : Leonard Stigler, Mai Nguyen, Shiv Passi
법무사 : Adam K. H. Yoo, David Song, Mark Ginz
Kate N. Han, Hassanein Bhaloo,
Earl Francis Dacara



T : 416.739.8887 / 647.891.8867 / F : 416.739.7559
1018 Finch Avenue West, Suite #100, Toronto

10. Maynards Sour Patch Kids Heads 2 Flavours in 1 (Mondelez International)



열대풍 캔디류의 간판 시리즈인 메이나즈 새콤 캔디가 하나에 두가지 맛을 담은 재미있고 감쪽한 아이디어 상품을 출시했다. 풍미도 깊고 아이들에게 흥미도 유발하고 새콤달콤한 맛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두가지 새콤한 맛이 하나의 조각에 담겼으니 관심을 끌고 아이들끼리는 얘기가 되리만하다. 새콤 캔디류에서 선정된 제품이다.

11. Station Cold Brew (Station Cold Brew Coffee)



최근 수년간 상승세를 타고 있는 콜드브루 커피 분야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신제품이다. 휴대가능한 캔 커피의 일종으로 흔치않은 콜드브루 캔 커피이며 건강을 의식하는 소비자층을 위해 개발한 제품이다. 무가당에 유제품을 섞지 않았으며 질소 주입한 브루커피다. 각성과 원기 회복에도 순간 효과가 있다고. 이 제품도 웰빙 트렌드에 맞춘 신제품의 하나이며 현재 캐나다에서는 질소주입 제품은 편의점 채널에서만 유통시키고 있다.

2014년에 사업을 시작했으며 웰빙 제품만 고수하는 까탈스러운 소비자층에 어필했고 성공을 거두고 있다. 전체 음료시장에서의 실적 측면에서도 괄목할 실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12. Road Trip Beef Jerky (The Great Canadian Meat Company)



25년간 맛좋은 저키를 생산해온 GCMC가 2개의 새로운 로드트립 저키 시리즈를 추가했다. 하나는 매운맛 비프 저키이고 또 하나는 캔터키 버번 비프 저키다. 발상은 산하수제 저키 라인인 쿠르치구어메이 델리에서 얻

2020 OKBA 장학생 선발공고

협회는 회원 자녀들의 학업 정진에 대한 격려 및 회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매년 장학생을 선발하여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옆의 사항을 참고하여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 서류

- 신청서
- 지구협회장 추천서
- 성적증명서 - 학교에서 직접 발행한 증명서 학교 온라인으로 프린트된 증명서는 접수 불가
- 자기소개서(Essay) - 심사항목 : 사회봉사 활동, 미래지향적 비전

진행 일정

- 1월 31일 (금) 신청서류접수 마감 (*우편접수시 소인날짜 기준)
- 2월 13일 (목) 신청서류 심사 (장학분과위)
- 수여자 최종 확정 통보 (심사 완료 후 즉시 우편통보)

신청 자격

- 2년 이상 연속 협회 회원의 자녀(2018년 1월 31일 이전 회원 가입)
- 접수마감일(2020년 1월 31일) 까지 정회원 자격 유지
- 본 장학금 첫 수혜자로 2년차 이상 재학 중인 풀타임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 당해년도 성적증명서에 F학점 과목이 없을 것.
- 당해년도 한 가정 한 자녀에 한함.

기타

- 신청서, 지구협회장 추천서는 협회 웹사이트 www.okbacanada.com 공지사항에서 출력
- 서류미비 및 마감 후 접수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어온 아이디어로 편의점 채널을 통해 대대적 보급을 계획했다. 아질산염을 제거하고 엘러지가 있는 소비자들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입안에서도 깔끔한 맛이 더 나도록 맛의 구조에 변화를 가했다. 웰빙 관련한 부분에서 모두 만족할 만한 조건을 갖추어서 고품격 스낵을 즐기고자 하는 취향의 고객에 안성맞춤이라고 한다. 포장도 세워면 기립할 수 있고 지퍼로 개폐가 반복될 수 있도록 고안돼 있어 휴대용으로 오래 보관하고 먹어도 무방하다. 브랜드명 그대로 장거리 자동차 여행에 적격이다. 간식거리로 또는 기분전환 원기회복으로 손색이 없다고 한다.

13. Lofbergs ICE (Lofberg Canada Inc.)



RTD커피(ready-to-drink 커피) 즉, 바로 까마실 수 있는 커피로 쉽게 말해 우리말로 캔커피를 이르는 이곳 전문 용어다. 아이스 커피가 기존에도 몇가지 있으나 천연성분으로 만든 대체 아이스 커피를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재료도 공정거래(fair trade)인증받은 것으로 만들었으며 오가닉 우유를 배합했다. 공정거래 재료라 함은 원산지 노동력을 착취하지 않고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고 들여온 원료를 일컫는 말로 착한 기업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요즘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도 동참 열기가 높다. 설탕을 첨가하지 않았다는 것도 자랑이다. 용기도 실린더 모양의 아주 모던한 분위기를 물씬 풍기며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결정적인 것은 재활용 가능한 카드보드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얼핏 알루미늄 캔으로 보일 뿐이다. 친환경과 건강을 의식하는 소비자들 구미에 딱 맞는다.

14. On The Go Fusion Snacks (회사명 동일)



편의점 고객들의 식품 소비 취향은 즉석 소비다. 빠르고 쉽게 그리고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한다. 그러나 그 바쁜 틈에도 라벨을 열심히 살펴보는 것이 요즘 소비자들의 트렌드다. 건강을 그만큼 의식한다는 징표다. 온더고퓨전스낵사가 바로 이런 소비자 취향을 잘 반영한 웰빙 스낵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너츠류, 말린 과일, 콩 등 건강에 유익한 재료들을 배합한 스낵으로 맛있고 단백질 풍부한 스낵들로 라인이 구성돼 있다. 무게도 편리한 휴대를 위해 42.5그램짜리와 90그램짜리 두종류로 나온다. GMO(

유전자변형농산물)는 사용하지 않으며 유태인이나 아랍인을 위한 코셔 또는 할랄 제품도 생산한다. 전통적인 짠스낵류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15. Lucky Lotto Scratcher (회사명 동일)



즉석복권 스크래치를 깔끔하고 편하게 해주는 도구이다. 17개 선정 아이템 중 비식품 분야의 두개 중 하나로 시선을 끌었다.(또다른 하나는 마지막 소개하는 vanilla visa 선불 선물카드) 깜찍한 아이디어 상품이다.

환경친화적이고 저렴하고 소매업주 입장에서 마진도 아주 좋아 매력적이다. 손님들이 즉석복권 값을 때 하는 습관은 뻔하다. 동전꺼내 박박 긁는게 전부 아닌가. 자칫 숫자가 뭉개져서 낭패감을 겪기도 하고...

긁은 다음에 생기는 쓰레기 조무래기도 다 마그네틱 성질로 다 흡착한다. 뒷끝이 깨끗한 것이다. 사이즈는 열쇠고리에 달 정도로 작은 사이즈가 있고 이보다 좀 더 큰 사이즈가 있다. 한번 사면 평생 사용한다. 계산대 근처의 아주 작은 공간만 마련하고 진열하면 손님들이 충동구매로 너도나도 산다고.

16. COCO5 (Brand Strategy Execution Inc.)



스포츠 드링크류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탄생 배경에는 NHL의 한 트레이너가 선수들을 위한 깔끔하면서도 천연성분의 이온음료를 고민하던 것이 자극이 됐는데 여하튼 이 제품은 출시 직후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켜 현재 운동선수뿐 아니라 건강을 추구하는 역동적 라이프스타일의 일반 대중들에게도 큰 인기를 구가 중이라고 한다. 설탕, 인공색소, 화학첨가물 따위는 전혀 없다. 코코넛 원액을 기본 원료로 타 유사 제품과의 경

쟁 우위를 점한다. 매력적인 다양한 맛의 시리즈를 보유하고 편의점 손님의 니즈에 부합하는데 적극임을 내세운다.

17. The Vanilla Visa (공급사 InComm Canada)



20~500달러로 최저와 최고치 금액 구간을 정한 바닐라 비자 선물카드는 선물용과 본인 사용 모두에 통용되는 직불 카드 상품이다. 전세계적으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고 온라인 쇼핑도 물론 가능하다. 모든 기존의 선불 선물카드라는 것이 액수가 정해져 있는데 반해 이 제품은 사용자가 앞서 언급한 금액 범위내에서 재충전 반복 사용하며 활성화수수료(activation fee)는 최초의 한번 7.95달러 지불로 끝난다. 선불카드 사용은 현대 소비자들의 필수품이 되어 가고 있고 편의점에서 우유, 빵, 복권 등을 사면서 빈번히 꺼내드는 카드가 되고 있다. 17개 선정 상품 중 비식품 분야 두개 중 하나로 주목을 끌었다. ■

이토비코 지구협 정기총회 정·부회장 선거

- 일시 : 2019년 12월 29일 (일) 오후 8시
- 장소 : 더프린 서울관
3220 Dufferin St., #1A, North York
Tel (416) 782 - 4405
- 안건 : 회계 보고
정·부회장 선거
연말파티 (온가족 참여)
- 문의 : 이두승 (416-895-1277)

***선거문의**
선거관리위원장 강기백 (416-252-0080)

이토비코 지구협회장 이두승

Ontario Volunteer Service Awards

온타리오 봉사상 신청 공고



OKBA 한인실업인협회



온타리오 주정부에서 매년 온타리오 봉사상을 수여해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영리단체나 조직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온 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지난 1986년부터 이 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상은 봉사 기간에 따라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40년, 50년, 60년 이상 등 총 9종이 있습니다. 협회에도 매년 추천의뢰가 오고 있으며 최대 6명까지 추천이 가능합니다. 2020년 추천자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지하오니 지구협회장은 소속 회원들 중 기준에 부합하는 회원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추천인원

6명 (OKBA가 정부에 추천할 수 있는 최대 인원임)

2. 추천대상

OKBA 회원으로 5년 이상 협회 (본부협, 지구협)를 위해 헌신적이고 지속적으로 봉사한 자.

(*5년 이상 기간은 중간에 단절이 있으면 정부측 기준에 따라 추천 불가능)

3. 추천방법

회장단, 이사장단이 추천한 자, 지구협에서 자체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지구협회장이 추천한 자.

(*주정부로부터 이미 명예 또는 봉사상을 수상한 자는 제외)

4. 신청마감

2020년 1월 16일 (목)

5. 신청서 양식

양식은 협회 웹사이트 www.okbacanada.com 공지사항 '온타리오 봉사상 신청 공고'에서 '추천서'양식을 출력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양식과 함께 별지에 '추천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작성된 추천서류는 우편이나 팩스 또는 직접 제출 모두 가능합니다.

- 주소. 169 The West Mall, Etobicoke, ON M9C 1C2

- 전화. 416-789-7891

- 팩스. 416-789-7834

이사 전원에 분야별 업무 분담

조합 심기호 부이사장, 새 이사장 선출



▲ 협동조합 새 이사장으로 선출된 심기호 이사 (테이블 건너 맨 우측)가 이사 전원의 업무분담제를 제안하고 있다.

협동조합 심기호 부이사장이 신영하 이사장의 뒤를 이어 임기 2년의 새 운영이사장에 선출됐다. 협동 조합은 지난 12월 월례 이사회를 6일(금) 개최해 단독 후보의 심 부이사장을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 의결권을 가진 8명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인준했다. 심 이사장은 과거 2000년대 중반부터 약 8년 가까이 토론토 웨스트 지구협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참고로 조합 운영이사회는 총 8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이루어진다. 또한 과거에는 2명의 감사는 읍서버 자격으로 회의에 참가만 하고 발언권이나 의결권을 가지지 않았으나 이번 이사회에서는 앞으로 발언권과 의결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10명 중 1명을 제외한 9명이 참석했으며 1명의 감사를 제외하고 8명의 이사들이 의결에 참가했다.) 지난 12월 3일 열린 연차 주주총회에서 새로이 구성된 신임 이사회가 3

일 후인 이날 첫 이사회를 개최해서 그 첫 임무로 신임 이사장 선출을 처리한 것이다. 조합의 새 사령탑이 된 심 이사장은 이미 부이사장으로서 조합의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해왔기 때문에 업무 파악을 위한 시간 손실이나 혼란은 겪을 필요가 없다는 점이 조합으로서 큰 다행으로 여겨진다. 또한 조합의 공급사는 물론 협회 공급사와의 협상 파트너에 더해 협회 대정부 로비 업무 등 두 조직의 핵심 업무를 전천후로 맡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두 조직의 통괄적 업무 장악에서도 유감없이 능력을 발휘해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심 이사장은 선출된 즉시 후반부 회의를 이끌며 향후 조합 운영에 있어 주목할 정책을 발표했다. 이사 전원의 전담 업무 분장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모두 4개 분야로 나뉘었으며 인사, 전산/POS, 재정회계, 사업

으로 대별된다. 이사들은 각 분야의 1개 이상에 배속돼 회원과의 상시적 업무 협의 및 관리 통솔 임무를 부여받았다. 감사 또한 4개 분야 중 한 곳에 임무를 할당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두개 이상의 분야를 맡게 되는 이 사도 있다.

회의에 참석해서 현황 보고받는 것으로 그치는 수동적 자세에서 탈피해 보다 적극적으로 조합 경영에 관여하는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높이는 취지다. 심 이사장은 "이사로서의 소속감을 분명히 하고 직원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를 통해 비즈니스 효율성을 제고하지는 차원"이라면서 "이사들은 주단위로 해당 직원과의 정기 모임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조합 임원으로 처음 데뷔하게 되는 류승진 이사는 직원들의 주인의식을 강조하면서 주인의식 부재가 창의성과 진취성이 발현되지 못하는 치명적 결실돌인바 이사들이 직원 관리를 효율적으로 잘 하기에 따라 조합 분위기가 일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조합 직원들의 업무 분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결과제임을 내세웠고 실제로 이미 협회 직원까지 포함해 조합 직원들의 직무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류 이사는 지난 10월 협회 정기 총회에서 3명의 감사 중 1명으로 선출돼 협회에서도 임원을 처음으로 맡게 됐는데 조합에서의 향후 역할도 주목된다.

협회 신재균 회장은 유효기간 경과 폐기 상품 처리 과정이 투명해야 하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진과 폐기물 목록 등 자료 작성과 보고를 철저

히 해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주문 재고량 관리의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역설했다.

한편, 협회의 프로그램스토어 사업이 조합 산하로 이관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지는 제안도 있었다. 이는 협회 외부감사 이방록 회계법인이 최근에 지적한 사안이며 기존 리베이트 창출을 포함해 프로그램스토어 사업이 비영리 법인의 성격에 걸맞게 외형적 모습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권고가 있었다. 하나의 아이디어로 조합은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조합이 직영하는 프로그램스토어 모델을 보급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내년 1월 운영이사회의 이사안에 대한 검토안을 각자 제안토록 했다.

예산 집행의 엄정성을 기하기 위해 협회 회장이 조합 운영이사장 결제에 동시 사인하는 것이 방침으로 확정됐다. 불가피하게 사인을 할 수 없으나 즉각 집행돼야 하는 결제는 전자사인으로 하되 그 대장을 만들어 일일이 기재하도록 했다. 회계 행정 관련해 과거의 방만한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의 일환이 바로 협회 수장의 조합수장 결제권 분유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다. 이에 대해서는 양측이 사전에 합의된 것 이며 이를 이날 회의에서 재확인시켰다.

새로 출범하는 이사진의 첫 공식 모임이었던 만큼 저마다 각오들을 새삼 다지는 분위기였으며 모바일 매장 폐쇄와 웨스트몰 건물 매각 등 최근에 겪은 일련의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조합 경영 안정화가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웰컴 투 캐나다

- 캐나다 시민권 시험 준비반

- 일시: 1월 9일, 16일, 23일 (목) / 총 3회기
오전10시 - 오후12시
- 장소: KCWA 배더스트-핀치 사무실
- 담당: 정착상담원 박민희 (문의: 416-340-1234)
- 내용: 1. 웰컴 투 캐나다
2. 내가 살고 있는 온타리오 이해하기
3. 캐나다 시민의 권리와 책임
4. 캐나다의 역사, 근현대사, 정부, 사법시스템
5. 캐나다의 상징, 경제, 지리

캐나다 정부/공기업 취업하기

-세금/재산 관련 분야

- 일시: 1월 21일 (화) 오후6시 - 오후8시
- 장소: KCWA 배더스트-핀치 사무실
- 담당: 정착상담원 최성혜 (문의: 416-340-1234)
- 내용: 1. 캐나다 정부기관 및 공기업 취업 정보
2. 세금/재산 관련 정부기관 및 공기업 알기
3. 지원 자격과 취업 절차
4. 정부기관 및 공기업 취업 경험 나눔
5. 질의 응답

마음과 감정의 심폐소생술(CPR)

- 일시: 1월 10, 17, 24, 31일, 2월 7, 14일 (금) / 총 6회기
오전10시 - 오후12시
- 장소: KCWA 배더스트-핀치 사무실
- 담당: 가정상담원 박민희 (문의: 416-340-1234)
- 내용: 1. 아픈 마음 심폐소생하는 '공감'
2. 자존감을 높이는 칭찬의 기술
3. 건강한 자아정체성
4. 나를 사랑하고 인정하는 법
5. 남의 말에 상처받지 않는 법
6. 나를 돌아보는 시간

2019 개인 소득세 신고

- 일시: 1월 28일 (화) 오후6시 - 오후8시
- 장소: KCWA 배더스트-핀치 사무실
- 담당: 가정상담원 이선경 (문의: 416-340-1234)
- 내용: 1. 2019년도 세금보고 시 달라지는 것들
2. 소득, 공제, 세금 공제
3. 세금 혜택의 종류와 안내
4. 알아두어야 할 사항
5. 질의 응답

온타리오 오리엔테이션 1

- 온타리오 의료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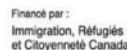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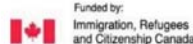
- 일시: 1월 28일 (화) 오전10시30분 - 오후12시
- 장소: KCWA 배더스트-핀치 사무실
- 담당: 정착상담원 강영옥 (문의: 416-340-1234)
- 내용: 1. 온타리오 의료시스템
2. 시니어를 위한 무료 치과 치료
3. 온타리오 약 혜택
4. 트릴리움 약 혜택

- KCWA 캐나다한인여성회 순회상담 서비스
-일시: 1월 13일 (월) 오후1시30분 - 오후4시30분
-장소: 토론토 중영사관 (555 Avenue Road, Toronto)
-문의: KCWA 캐나다한인여성회
(416-340-1234 / 416-340-1777)

- 커뮤니티 자원봉사
-일시: 1월 11일, 25일 (토) 오전10시 - 오후2시
-장소: Good Shepherd Ministries
-문의: KCWA 캐나다한인여성회
(416-340-1234 / 416-340-0838)

2020년 1월 프로그램

- KCWA 노스옥센터
: 5075 Yonge St., Suite 401, North York
- KCWA 배더스트-핀치
: 540 Finch Ave., W. North York



“편의점 술판매 확대 박차 가해달라”

OKBA 정부 여당 단독 로비 성황



▲ OKBA단독 대정부 로비 행사에 모인 협회 참가자들이 조성준 장관, 동료 의원들과 자연스럽게 의회 지하 식당에서 어울리며 답소를 나누고 있다.

본부협회는 지난 12월 5일 (목) 하루 종일 온타리오 보수당 정부의 핵심 인사들을 대상으로 협회 단독 비어와인 캠페인을 컨즈파크에서 활발히 벌였다. 올 한해를 마감하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대정부 로비활동이었다. 접촉한 인사들도 비중이 커 행사의 무게감이 더욱 실렸다. 온주 편의점협회(OCSA)가 핵심 회원들의 탈퇴로 위상이 크게 퇴조되면서 상대적으로 협회의 대 정부 로비력이 크게 높아졌음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는 자리였다.

보수당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비즈니스 친화정책이 전면에 부각됐고 공약사항이었던 편의점 주류판매 정책도 이미 작년부터 밀그룹이 그려졌다. 그리고 올해 정부는 빅 피델리 당시 재무장관을 통해 4월 세 예 산발표에서 이 정책을 공식화했다. 이후 관련 부처인 재무부와 법무부가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절차에 착수했다.

재무부의 활동은 올 한해 줄곧 뚜렷하게 가시화됐다. 산하 조직인 LCBO를 통해 최근까지 모두 3차례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소매업소 주류판매 명단을 발표했다. 수백 곳의 편의점이 허가를 얻어 현재 영업 중에 있고 회원 업소도 10여 곳 확인됐다. 법무부는 지난 자유당 정부가 비어스토어와 맺은 장기 10년 계약 파기의 법적 타당성 검토 등 골치아픈 문제를

맡았다. 한 정부 고위층의 말에 의하면 이 문제도 올해 말까지 순탄하게 정리가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일부 여당 의원들은 정부가 편의점 술판매 확대를 위해 진력하고 있으나 이해당사자가 더욱 적극 나서서 정부에 힘을 보태주는 것이 절실하다는 조언을 했다. 일종의 친위(親衛)캠페인을 당부하는 뉘앙스인데 이런 조언을 하는 대표 인사가 바로 한국계 초선인 스텐 조(조성훈) 의원이다. 그는 초선임에도 재무장관 의정담당 보좌 의원을 맡으며 재정파트에서 비중있는 업무를 소화하고 있어 편의점 술판매, 복권 수수료 등 편의점과 밀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입지에 놓여 있다. 협회의 미래 울타리 역할이 크게 기대되는 정치인이다.

일명 OKBA Convenience Day라고 부를 이날 행사는협회 대외 로비활동을 맡고 있는 전문 회사 그래스 루츠(Grassroots Public Affairs)가 전체 일정을 잡고 협회는 한국계 의원이자 장관인 노인복지부 조성준 장관의 측면 지원을 활용해 행사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적 네트워크 분위기 조성을 담당했다. 결과는 대 만족이었다. 협회측은 신재균 회장을 비롯한 다수의 지구협회장과 일반 회원 그리고 직원까지 가세해 총 15명이 팀을 이뤘다.

(14면에 계속)

퀸즈파크 로비 비어와인 캠페인



행사 격려 차원에서 협회 방문단을 찾아 준 피델리 전 재무장관.



조장관을 중심으로 동료 의원들과 기념 촬영.



편의점 현안 문제들을 조성준 장관과 옆의 장관 의정 담당 데이지 웨이 의원에게 전하고 있다.



편의점 업계의 변함없는 우군인 타드 스미스 의원과도 우애넘치는 담소



식당에서 격의없이 편의점 이슈들을 논의하는 월 보우마 의원과 방문단



경제개발부 중소기업 담당 사카리아 차관과 면담 후 기념촬영

OKBA참석자 명단 (가나다순)

금동진, 김대용(부부), 김병훈, 백사열, 신영하, 신재균, 심기호, 이경석, 이두승, 이만석, 이주녕, 정봉재, 정운일, 조용상



▲ 왼쪽부터 Amarjot Sandhu 의원, Will Bouma 의원, Prabmeet Sarkaria 의원

정부측 공식 접촉 인사로는 브램튼 웨스트 지역구 아마조트 산두(Amarjot Sandhu)의원, 브랜포드 지역구 윌 보마(Will Bouma)의원, 브램튼 사우스 지역구 프랍밋 사카리아(Prabmeet Sarkaria) 의원 등 3명이며 이외에 조성준 장관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 그리고 빅 피델리 전임 재무장관 등 이미 인연을 맺은 거물 정치인들도 두루 만났다.

협회 로비단은 오전 10시에 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해서 방청석에서 대정부 질의 현장을 참관했으며 협회 의 방문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소개 메시지가 흘러나오며 의원들로부터 큰 박수의 환영을 받았다. 이어 점심시간이 되자 지하 의원식당에 모여 오찬을 겸한 의원들과의 네트워킹을 가졌다. 조성준 장관이 바쁜 시간을 내 식당에 와서 분위기를 살렸다.

편의점 주류판매 확대 정책에 소신을 걸었던 전임 빅 피델리 재무 장관이 방문해 답소를 나누며 친밀감을 표시했고 예전부터 OCSA와 협회 인사들과 교분을 두터히 해왔던 타드 스미스(Todd Smith)의원도 찾아와 협회와의 우애를 한껏 과시했다. 피델리 장관은 타드 스미스 장관의 후임으로 현재 경제개발부 장관을 맡고 있고 스미스 의원은 아동/청소년 사회복지 장관을 맡고 있다.

공식 접촉 대상 첫번째인 산두 의원은 의회 산하 상임위에서 비중이 가장 큰 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편의점 업계 입장에서 유대관계를 단단히 해둬야 할 중요한 인물이다. 점심 식사 후 접촉한 윌 우마 의원 또한 더그 포드 수상 의정담당 의원이기 때문에 역시 관계를 돈독히 해둘 필요가 있는 인물이다. 마지막으로 4시 경에 만난 사카리아 의원은 경제개발부 중소기업 담당 차관을 맡고 있어서 스몰비즈니스의 주요 축을 이루는 편의점 업계가 직속 관장 분야인 만큼 협회가 접촉할 핵심 인사였다.

이번 정부 여당 접촉에서 협회측이 내놓은 최대 현안은 앞서 언급했듯이 편의점 비어와인 취급 전면 확대다. 물론 이 정부가 전향적 자세로 비어와인의 민간 취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GTA를 비롯한 도시 소재 편의점들은 외곽 오지에만 집중 허용되고 있는 정책이 한시바빠 자신들에게도 풀리기를 간절히 바란다.

일부 회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은퇴 또는 경영 부진으로 인한 매각 등을 생각했으나 술판매가 허용되면 사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 더 붙들고 가기를 원한다고 한다. 이는 협회 회원들만의 희망이 아니라 도시 소재

편의점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것이다. 협회측은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단계적 정책 추진을 적극 지지하며 전면 확대쪽으로 박차를 가해달라는 바람을 강력히 전했다.

이밖에 불법담배 근절을 위한 정부 여당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재삼 강조했다. 이 사안 역시 현 보수당 정부는 이전 자유당 정권보다 진일보한 통제 수위 강화를 보여 고무적이다. 예산에도 반영했고 인력 보강도 추진했다. 다만 어느 정권이고 버거운 짐인 원주민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나름 고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밝힌 의원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현재 한창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는 베이핑 제품에 대해서도 각별히 공을 들여 설명했다. 의외로 대부분의 의원들이 베이핑 문제에 대해 정통하고 있었던 것은 대화의 원활한 흐름에 도움이 됐다. 강조 포인트는 전문 베이핑 업소와 편의점에 대한 이중 기준 적용의 문제점이었다. 담배와 복권 판매를 통해 편의점 업계, 그중에서도 실험의 평가는 최고점을 얻고 있는데 베이핑 스토어들은 전혀 검증된 바 없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아침부터 강행한 협회 단독 캠페인은 4시 30분에 일정이 잡힌 사카리아 차관과의 면담을 끝으로 5시 경에 마무리됐다. 로비팀을 이끈 신재균 회장은 “올 한해 유종의 미를 거두는 대정부 행사로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편의점 술판매 1인 시위를 비롯해 각종 대정부 로비에 적극 동참해준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

www.okbacanada.com

협회 웹 주소 변경 예정

협회 웹사이트가 새 단장을 하며 주소도 바뀔 예정이다. 현재의 주소는 www.okba.net 이며 앞으로 변경될 주소는 www.okbacanada.com이다. 사실 지금도 새 주소로 방문해도 기존 주소와 동일한 내용을 볼 수 있다. 다만 과도기적으로 두 사이트가 동시에 운영될 뿐이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존의 주소는 영원히 사라진다. ■

NOTICE

- NEW 유제품 2월 3일부터 인상
- NEW 한인단체 활동보조비 지원 사업

호주에도 깃발 꽂나...

쿠쉬타르 역대급 인수작업 진행 중



▲ 쿠쉬타르가 호주 칼텍스 인수를 입질 중이다. 회사 창립 후 수많은 인수 합병이 있었지만 성사되면 최대 기록이 될 것이다.

캐나다 편의점 지존이자 세계 규모 2위의 편의점 왕국 알리망타시옹 쿠쉬타르(Alimentation Couche-Tard Inc.)가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작업에 착수했다. 호주 최대 주유소병설 편의점 체인 칼텍스 오스트렐리아(Caltex Australia Ltd.)를 77억 달러에 인수할 계획이다.

시드니에 본부를 두고 있는 호주 칼텍스 인수에 대한 쿠쉬타르의 인수 제안은 쿠쉬타르측이 먼저 내민 것이며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오세아니아 영역까지 시장 판세를 키워 회사 규모를 2 배로 확장하려는 구상의 일환이다.

회사CEO 브라이언 하나쉬씨는 인수 발표를 하던 지난 11월 말에 “칼텍스 주주들에게도 대단히 매력적인 제안”이라고 평하면서 “경영팀이 지난 수년간 아태(亞太)지역 잠재 시장을 물색해오던 차 몇차례의 기회를 타진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칼텍스와 더불어 우리는 지구촌 편의점 산업의 글로벌 입지를 위한 지렛대 활용의 기회를 잡는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쿠쉬타르의 영업 전문 노하우가 칼텍스 비즈니스 자원과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보였다.

쿠쉬타르는 이미 칼텍스 지분의 약 2%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번 인수 제

안으로는 나머지 98%의 주식을 주당 34.50달러로 인수하겠다고 한다. (* 캐나다 달러와 호주 달러는 큰 차이가 없어 거의 같은 환율로 계산하면 무방함) 한편, 칼텍스측은 쿠쉬타르의 발표에 대해 인수는 쿠쉬타르측의 일방적 의견이라 어떠한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건부 대외비를 전제로 한 오퍼였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에는 실제 인수가 이루어지는 시점 기준으로 주주들에게 특정한 배당금 지급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주주들에게 매력적인 것은 사실이다. 11월의 인수 제안은 지난 10월의 첫 인수 제안 의증을 드러낸 이후 두 번째인데 10월에는 주당 32 호주달러를 제안해 가격을 너무 낮춰 불렀다고 거절됐었다.

인수 범위에는 물자 자산이나 투자회수 또는 기 매각 결정키로 한 부분들이 제외된다. 한 금융투자 회사의 대표는 쿠쉬타르의 이번 인수 제안은 칼텍스측의 주당 순익 실적이 저조하고 이에 대한 책임으로 칼텍스의 CEO가 은퇴를 발표했으며 250개 매장이 투자신탁에 분사될 것이라는 발표가 나온 후에 가시화됐음에 주목했다.

이 투자회사는 비 소매분야의 자산 투자 회수 등을 비롯한 거래의 복잡성을 감안한 후 쿠쉬타르 경영진이 호주에서 소매업 분야 그 중에서도 편

(18면에 계속)

3.1운동 100주년, 우리안의 일본극우



▲ 일본을 사랑하고 한국을 혐오하는 감정에는 동서가 따로 없고 고금이 따로 없다. 위안부도 없었고 징용 징병도 없었고 일본 식민지배 덕에 한국의 근대화가 가능했다는 인식을 우리는 함께 한다. 우리가 남이가~

올해 명색이 3.1운동 100주년 기념의 해에 유달리 친일 발언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와 민족혼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한 해를 마감하고 있다.

종전(終戰) 후 유래를 찾기 힘든 극우 정권인 아베 정부의 오만방자한 행태로 분노를 금할 길 없는 한해를 참고 버티는 와중에 염장이라도 지르겠다는 듯 우리안의 아베, 아베의 아바타들이 득실대며 극성을 떨어댔다. 같은 한국인 맞나 싶은 이들의 망언을 재삼 반추하며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곡학아세 무리들에 대한 경계로 삼고자 한다. 100년도 더 전의 한 인물을 만나보자. 천하가 다 아는 그의 회고록 한토막을 인용한다.

■ 일당기사(一堂紀事)

『최초 25세 무렵에는 종래 조선인이 목적으로 하는 문과에 합격했다. 당시 미국과의 교제가 점차 긴요한 까닭에 그때 신설된 육영공원에 입학했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갑오경장 후 을미년에 이르러서는 아관 파천 사건으로 인해 로당(露黨) 즉 러시아당의 호칭을 얻었고 그 후 일로전쟁(日露戰爭*러일전쟁)이 끝날 때 이에 전환하여 현재의 일파·친일파라는 칭호를 얻었다. 이는 때에 따라 적당함을 따르는 것일뿐 다른 길이 없다. ... 무릇 천도(天道)에 순추동이 있으니 이를 번역(變易)이라 한다. 인사(人事)에 동서남북이 있으니 이것 또한 번역(變易)이라 한다. 천도, 인사가 때에 따라 번역하지 않으면 이는 실리를 잃고 끝내 성취하는 바가 없게 될 것이다.』

매국의 일등 공신인 이완용이 남긴 말이다. 일당(一堂)은 그의 호. 1907년에 시국을 논한답시고 마주 앉힌 그의 처조카이자 비서 겸 자신의 문집 편집 발간일을 맡았던 김명수에게 저 말을 늘어놨다. 그러면서 “지금 한 이 말은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말라”고 주의까지 줬는데 정작 처조카 김명수는 이완용이 죽은 이듬해인 1927년에 저 말도 포함해 일당기사라는 제목으로 이완용 전기를 발간하게 된다.

이완용은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는 달리 처음부터 친일파가 아니었다. 영어에 필요에 의해 처음에는 친미로 시작했고 고종을 피신시킨 아관파천으로 친러의 길을 걸었다가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자 곧바로 친일로 바뀐 것이고 이후 나라 팔아먹기까지 불과 짧은 기간 초고속 집중적인 친일행각을 벌였다. 실제로 그는 일본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몰랐다. 영어는 매우 능숙했고 이토 히로부미와의 사적 대화는 다 영어로 했다. 이완용이 처조카에게 한 저 말을 뜯어보면 사리사욕에 혈안이 된 자신의 카멜레온 같은 변신을 감히 주역의 심오한 뜻을 빌어다가 합리화하며 간특한 세치의 혀를 놀리고 있는 것이다. 천도와 인사의 철학이 이완용에게 이르러 변질의 합리화와 뛰어난 처세 감각으로 둔갑하고 있으니 불온한 지식인의

교언영색하는 테크닉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다.

친일 매국의 불가피성에 대한 당당한 요설은 제국주의 일본과 이후 지금의 아베 정권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식민지배에 그리도 당당할 수 있었던 뼈아픈 필미를 제공하고 있으니 일면 유구무언이기도 하다만 그것은 당시의 변절자들이 시대에 영합하고 부귀영화에 눈이 멀어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독립한지 70년이 넘는 오늘에 와서, 또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올해에 끝도 없는 이완용의 후예들이 등장해 망언이 극성을 떨고 있으니 차마 역겹지만 인내로 견디며 들어보자.

■ 아베 수상님 사죄드립니다!



『일본은 사과 많이 했습니다. 일본 정부에 대고 문재인 정권이 사과를 한번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만 되면 극우단체들의 거리 시위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엄마부대 대표 주옥순이 8월 8일 종로구 도로 변에서 떠들어댄 말이다. 이 여자는 일주일 전인 8월 1일 일본 대사관 옆에 설치된 소녀상 부근에서 자기를 따르는 아줌마 부대를 이끌고 『아베 수상님, 한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문재인을 철저히 지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월호처럼 침몰하고 말 것... 문재인이 머리를 숙이고 일본에 사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이 안된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날 자신이 직접 마이크 잡고 방송하는 ‘엄마 방송’에서 그녀는 『왜 일본을 까. 일본은 우리를 도와준 나라야. 과거에 식민지는 있었지만, 그 이후에 우리에게 해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그 고마움을 알고 있어.』 라고 부르짚었다.

그녀가 지난 수년간 내뱉은 수많은 망언 중 압권은 뭐니뭐니해도 다음의 말일 것이다. 『내 딸이 위안부였어도 일본을 용서한다.』 그래 무차별적으로 용서하거라. 원수도 사랑해야 할 터인데 뭘 용서못하리... 일본이 들으면 주옥같은 말만 해대서 이름도 주옥순이신가.

■ 소녀상, 창피하다!



▲ 수학공식 2개와 수학 정리 6개를 만들어 피타코라스와 같은 반열의 인물임을 스스로 자랑하는 지만원

당당하게 쫓은 말이다. 그는 5.18 민주화 운동을 여전히 폭동으로 믿고 있고 북한 특수부대가 뒤섞여 조종한 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 가난했던 시절, 일본 돈으로 나라 기초뒀었다!

『우리가 세계 밥도 못먹던 가난한 시절 일본 돈 받아 산업단지 만들었다. 한일 국교 정상화 때 5억달러를 받았는데, 일본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다.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사인을 했으면 지켜야 하는데, 그것을 무효화하고 돈 가져와라 그러면 공인된 약속을 안 지키겠다고 그런다. ... 한국만 아니라며 계속 사과하라는 건 납득할 수 없다는 게 일본사람 생각이다. ... 일본이 한국 물건 팔아주는 게 두배 많아 일본 상품 불매운동하면 우리가 손해다.』 잘못 들으면 아베가 하는 말인 줄 알겠다. 충북 보은군수 정상혁(자유한국당)이 8월 26일에 자매결연 지자체 울산 남구 워크숍에서 공개적으로 한 말이다.

■ 강제동원 없었다

『조선인 노무자들의 임금은 높았으며 전쟁 기간에도 자유롭게 편안한 삶을 살았다. ... 강제동원(징용)은 없었다.』 낙성대경제연구소 이우연 박사가 지난 7월 2일 열린 스위스 제네바 소재 유엔유럽본부, 인권 이사회(UNHRC) 본 회의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한 한일 관계 문제'와 '징용노동 관련 한국의 근현대사 왜곡 문제'에 대해 발표한 내용 중의 핵심이다.

일본 극우 학자의 발언하고 판박이다. 하도 충격적이라 국내 한 언론이 "강제동원됐고 인권유린을 당한 수많은 증거와 증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문하자 가볍게 이렇게 응수했다. "피해자들의 증언을 다 믿을 수 있겠냐. 검토해볼 문제다... 밥을 조금 줬다는 것도 당시 일본인 노무자들에게 똑같이 조금 줬다. 한국인들은 많이 먹기 때문에 똑같이 밥을 줘도 한국인들이 배가 고했으니 밥을 조금 줬다고 증언하는 것이다. 배가 고했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맞는 이야기다." 이쯤 하면 이젠 막장 개그이니 인간의 쉼은 이 정도로 그치자.

■ 위안부는 매춘부와 같다

『한국에서만 일본이 말도 안 되는 국가로 취급받는다. 일본은 세계적인 강대국이다. ... 나를 혹시 여러분이 친일파라고 오해할 것 같은데 친일파 맞다. 중국이랑 친한 거보다는 일본이랑 친한 게 더 좋다는 뜻에서 그렇다. ... (위안부는 매춘부와) 비슷한 거다. 그 사람들(매춘부들이) 왜 매춘하냐. 살기 어려워서다. 옛날(일제강점기)에도 그랬다. ... (듣다 못해 한 청강자가 "위안부 할머니들은 교육을 시켜주겠다는 등 일본의 말에 속아서 간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이에 대해) 지금도 매춘 들어가는 과정이 딱 그렇다. 지금도 '여기 와서 일하면 절대 몸 파는 게 아니다' 매너 좋은 손님들한테 술만 따르면 된다'고 해서 접대부 생활을 하게 된다.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다. 금급하면(학생이) 한번 해볼래?』 지난 9월 19일 연세대 류석춘 교수는 자가 발전사회학 강의를 하던 중 내뱉은 이야기다. 수업받던 학생들만이 아니라 동문은 물론 사회 전체가 들끓었다. 류씨는 인준근을 테러리스트로 보는 한국 수구 지식인의 한 형이며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기도 하다.

■ 반일종족주의?



▲ 반일종족주의 저자 이영훈과 그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대한 학자로 존경하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이밖에도 친일 발언 단골손님으로 늘상 등장하는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올해 7월 그의 저서 '반일종족주의' 북 콘서트를 하는 자리에서 한 말도 감상해보자. 『대체로 1987년 이후부터 일본을 악의 세력으로, 악의 종족으로 감각하는 한국인들의 역사 인식이 이른바 민주화의 이름으로 깊숙이 한국인의 마음을 오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과거사 무관성의 뻔뻔한 태도에 대한 제정신 가진 대한민국의 반일 국민 정서를 "일본을 악으로 보는 못한 습성이 한국 국민의 심성에 내재돼 있다"고 철저히 매도하고 있다. 더 쉽게 말해 한국민은 DNA에 혐일(嫌日)을 안고 태어난 종족이라는 비아냥에 다름 아니다. 가제는 개편이라 했던가. 저런 황당한 저서에 황당한 자평을 듣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자는 이렇게 화답했다. 『이영훈 교수님은 제가 신문사 논설 실장을 할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대한 학자라고 저는 판단해서 북 콘서트 소식치고 달려왔습니다. 토착대우' 여러분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 저는 토착대우입니다.』 기억이 오래돼 가물거리겠지만 참고로 윤창중은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에 청와대 대변인으로 정상회담 방미단에 포함돼 워싱턴을 갔다가 인턴 여직원 성추행으로 한미 양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도중 하차한 인물이다.

이상을 한해 나온 친일 망언 중 병산의 일각을 소개했다. 글을 마무리하기 전 저들의 공통점을 지적해둔다. 저들은 이승만과 박정희를 흠모 숭상한다. 지식인연 하는 자들은 과와 공을 함께 봐야 한다는 그럴듯한 양시론으로 치장하고 있지만 그냥 치장일 뿐이고 두사람에 대한 애정이 넘쳐난다.

두번째로 저들은 대한민국 진보진영을 싸잡아 친북으로 본다. 그래서 현 정권을 김정은 하수인이라고 매도하며 한일 갈등 국면도 무조건 한국 정부의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왜곡된 이념이 낳은 반민족행위일 뿐이다. 회한한 것은 저들 친일 지식인 중 상당수가 한때 극좌파였다는 사실이다. 변절인가, 현실의 뒤늦은 깨달음인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모두 그런 것은 아니나 대개가 일본 관련 단체나 기업체 혹은 기업체가 운영하는 학술 재단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넉넉한 후원금을 지원받는다. 지식인의 양심을 파는 것이다. 일본의 전방위적 친일세력 만들기 프로젝트의 음험함은 안중에도 없다. 심지어 어떤 교수는 받았다고 아주 대놓고 자랑스럽게 말하기도 하는데 솔직해서 좋기는 하다.

3.1운동 100주년의 해가 우울하게 저물어간다. 모국에서는 자발적 애국심으로 일본산 맥주가 99.9% 자취를 감췄는데 그나마 이 통계로 상처 받은 민족자존심에 위안을 받을까나... ■

의점 전망을 가장 밝게 점쳤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다른 시장분석 연구 기관은 칼텍스 인수는 쿠쉬타르의 회사 규모 100% 확대 5개년 계획과 일치하는 사업의 하나임을 확인했다.

이 기관의 대표가 보고서에서 내린 결론은 요약하면 이렇다. “호주 편의점 소매 채널은 주유소쪽의 탄탄한 기반때문에 전망이 매력적인 바탕을 가지고 있다. 다만 편의점 쪽 경영이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어 분발 개선할 여지와 기회가 많다는 점이 쿠쉬타르의 관심을 끌었을 것으로 보인다.” 호주 칼텍스는 전국에 주유소병설 편의점을 약 2,000개 거느리고 있다.

한편 쿠쉬타르는 지난 11월 26일 기준으로 2/4분기 순익이 1/4분기 대비 약 21.5%가 늘었다. (US \$ 4.77억 달러에서 5.79억 달러) 매출 규모로 비교하면 2018년 2/4분기 매출은 147억 달러였으며 올해 2/4분기는 136억 8천만 달러로 꽤 줄었다. 이를 편의점과 주유 두 파트로 구분해 실적

을 보면 편의점 쪽은 35억 달러로 2.3% 증가했으며 기름쪽은 99억달러로 8.8%가 줄었다.

편의점 쪽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미국쪽이 3.2%, 캐나다는 2.1%, 유럽은 3.3%씩 각각 증가해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추가로 보면 주당 평균 순익은 48센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쉬 회장은 “보다 강력한 실적 개선을 통해 사업 전반에 걸친 꾸준한 증가를 보일 것”이라고 각오를 다지며 사업 다각화와 유럽쪽 이미지 쇄신에 주력할 뜻을 밝혔다.

쿠쉬타르 편의점망은 북미주에 약 1만 개, 유럽에 2,700여 개가 있다. 전 세계 종업원 수는 133,000여 명이다. 서클케이(Circle K) 간판을 달고 라이선스 계약으로 영업하는 곳도 지구촌 전체에 2,250개가 있다. 이제 캐나다 기업 브랜드의 자존심이자 편의점 지존인 쿠쉬타르가 오세아니아 지역에 깃발을 꽂아 명실공히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서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는 순간이다. ■

토론토 웨스턴·욕 지구협회 정기총회 정·부회장 선거

GTA 통합정관 제 3장 9조에 의거, 웨스턴·욕 지구협회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식을 아래와 같이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 일 시 : 2020년 1월 9일(목) 1:00 p.m
- 장 소 : 더프린 서울관 (416-782-4405)
(3220 Dufferin St. NorthYork ON. M6A 2T3)
- 안 건 : 정·부회장 선거
2019년, 회계 결산(감사) 보고

※웨스턴·욕 지구협회는, 지구협회의 경비절감 차원으로 신년하례식 겸, 정·부회장 선거 및 정기총회를 부득히 같은날 치르게 됨을, 회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석 여부 및 정·부회장 선거관련 문의는, 647-570-1333 또는 647-302-3770 으로 문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웨스턴·욕 지구협회, 정·부 회장 선거 공고]

토론토 웨스턴·욕 지구협회 정·부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오는 2019년 12월31일까지 등록 마감하며, 관심있으신 회원님은 후보등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의 : 선거관리위원장(연상흠 416-654-8066)

토론토 웨스턴·욕 지구협회 회장 조용상

리치몬드 지구협회 정기총회 정·부회장 선거

GTA 통합정관 제 3장 9조에 의거, 리치몬드 지구협회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아래>

- 일 시 : 2020년 1월 22일(수) 1:00 p.m
- 장 소 : 사리원 (905-881-5103)
(7388 Yonge St.)
- 안 건
- 2019년 결산 보고, 예산 승인 및 감사 보고
- 정·부회장 선거 및 이사 감사 선출

* 리치몬드 지구협회 정·부회장 선거 관련 관심있는 후보자는 2020년 1월 22일까지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선관위원장 김학용 905-731-8265)

2019년 12월 9일

리치몬드 지구협회 회장 김대용



■ KBA 협동조합

169 The West Mall, Etobicoke
(협동조합 사무실) ----- (416) 789-7544
169-175 The West Mall, Etobicoke
(협동조합 웨스트몰지점) -----(416) 867-1444

■ 복권관련

AGCO (복권 판매 라이선스 관련) -----(416) 326-8700
(800) 522-2876
Fax (416) 326-5555
OLG -----(800) 387-0104

■ 음료

Coca Cola Bottling Company ----- (800) 241-2653
Pepsi Bottling Corp. -----(905) 568-7909
(800) 387-8400
Saint Jimmy's Coffee Service ----- (416) 250-9427

■ 우유

SAPUTO(Neilson Dairy) ----- (800) 663-4724

■ 스낵

Frito Lay Canada -----(905) 460-2414
South Cove ----- (905) 829-3666
Conagra Brands Canada ----- (416) 679-4200

■ 샌드위치

Classic group of companies ----- (905) 470-1926
A Biz Gourmet(Shirley 부사장) -----(416) 665-1052

■ Meat Jerky

Great Canadian Meat ----- (905) 666-9395
Conagra -----1- (888) 639-7868

■ 초코렛 / 캔디

Nestle Chocolate -----(800) 500-5634
Mars Canada Inc -----(800) 565-0147
Hershey Canada Inc. ----- (800) 268-1304
Mondelez(Cadbury/Christie) ----- (855) 535-5648
Wrigley Canada -----(416) 442-3298

■ 아이스크림

Nestle Ice Cream -----(905) 458-3600
Ontario (800) 500-5634

■ ATM / Debit

Touch Cash -----1- (866) 391-3950
Moneris Solutions ----- 1- (877) 789-5335
1Solution -----1- (888) 554-7355

■ 잡지

Metro 360 ----- (416) 285-2050
News Group -----(905) 681-1113

■ 법률관련

변호사 이영동 -----(905) 272-4339
Best Defence (아담 유) ----- (416) 739-8887

■ 금융 / 회계 / 재정 / 보험

Bank of Canada(위조지폐 관련문의) - (888) 513-8212
신한은행 -----(416) 250-3550
외환은행 -----(416) 222-5200
이방록(회계사) -----(416) 221-2009
박효진(보험중개인)----- (416) 985-5287

■ 언론사

한국일보 -----(416) 787-1111
중앙일보 -----(416) 736-0736
Globe and Mail -----(800) 387-5400
National Post ----- (416) 383-2500
Toronto Star -----(416) 367-4500
Toronto Sun -----(800) 668-0786

■ 장비 설치 수리

종합캐쉬레지스터 -----(416) 622-2255
프로캐쉬레지스터 -----(416) 804-4075
Cool Air Cleaning ----- (416) 224-0020
Hi Cool Tech -----(416) 909-7114

■ 광고 미디어 전문 대행 회사

Adapt Media ----- (416) 856-4466

■ 기타

Kocom -----(416) 769-3532
DSC Digital System ----- (416) 255-6549
David Health International ----- (647) 726-1010
허바헬스 ----- (416) 435-5754
365 Wholesale ----- (416) 931-9002
Butterfly Fashion ----- (416) 785-5999
The Best Inventory Service -----(905) 359-8560
원도매상 ----- (416) 661-6664
DavidWholeSale ----- (416) 419-3751
78 Trading ----- (437) 777-7878
Yeno Trading ----- (647) 967-6561
용역 회사 Tyson Lee -----(647) 545-0922
Atlantic Prepaid Card -----1-(888) 479-7779





Sincere Trading of KBA
West Mall Branch

December SPECIAL SALE



35⁹⁹

Red Bull
24/250ml Original Only
Reg.\$42.99 **Spe.\$35.99**



1¹⁹

Heinz
Tomato Juice 1.36L
Reg.\$2.49 **Spe.\$1.19**



1¹⁹

Allen's
Apple Juice 1.05L
Reg.\$1.35 **Spe.\$1.19**



1⁹⁹

2⁴⁹

3⁹⁹

McCain
French Fries 900g Reg.\$2.69 **Spe.\$1.99**
Xtra Crispy Fries 650g Reg.3.09 **Spe.\$2.49**
Premium Super Fries 650g Reg.\$3.09 **Spe.\$2.49**
Xtra Crisp Seasoned Fries 650g Reg.3.09 **Spe.\$2.49**
Deep'n Delicious Cakes 510g Reg.4.79 **Spe.\$3.99**
Deep'n Delicious Fruit Pies 680g Reg.4.79 **Spe.\$3.99**
Delicious Cream Pies 400g Reg.4.79 **Spe.\$3.99**
Pizza Pocket 3pack Reg.3.49 **Spe.\$2.49**



3⁵⁹

2⁷⁹

Sara Lee
Cheese cake 538g Strawberry & Cherry Reg.\$4.99 **Spe.\$3.59**
Oven fresh Pies 1.04kg All Flavours Reg.\$5.29 **Spe.\$3.59**
Pound Cake 304g Reg.\$3.59 **Spe.\$2.79**
Cream Pies 55g - 765g All Flavours Reg.\$6.99 **Spe.\$4.69**



Vidal Candy
1.2kg All Flavours Reg.\$7.49 **Spe.\$6.49**



Ferrero
Ferrero Rocher T3 3Packs Reg.\$15.25 **Spe.\$13.85**
Raffaello T3 3Packs Reg.\$19.65 **Spe.\$18.45**
Ferrero Collection T3 3Packs Reg.\$15.25 **Spe.\$13.85**



Clif
Clif Bar 68g All Flavours Reg.14.39 **Spe.\$12.75**
Clif Builders Bars 68g All Flavours Reg.16.69 **Spe.\$14.99**



Regal
D.Bubble Mi Phone \$17.99 **\$15.79**
Dubble Bubble Tub \$15.69 **\$13.99**
Baby Bottle Pop \$22.59 **\$20.29**



Kelloggs
Pringles 148g - 156g
All Flavours
Reg.\$2.39 **Spe.\$1.99**



Mondelez
Peek Freens 275g-300g All Kinds Reg.\$3.25 **Spe.\$2.89**
Crispers 175g All Flavours Reg.\$2.19 **Spe.\$1.99**



Brand Strategy
Popcorners 142g All Flavours Reg.\$2.05 **Spe.\$1.89**



Mondelez
Maynard Small Bag 17-185g
All Flavours Reg.\$1.89 **Spe.\$1.69**



Cadbury
Cadbury Singles Size 33-50g Excluding Flake
Reg.\$23.85 **Spe.\$22.85**
Flake 32g All Kinds Reg.\$29.59 **Spe.\$28.49**
Cadbury King Size 66-90g All Kinds
Reg.\$34.59 **Spe.\$32.59**



SPAM
Spam Luncheon Meat 340g
All Flavours Reg.\$3.75
Spe.\$3.09



Green Giant
Canned Vegetables 341-398ml
All Kinds Reg.\$1.49 **Spe.\$0.99**



Lindt Sprungli
Lindt Excellence Chocolate 100g All Flavours Reg.\$3.29 **Spe.\$2.75**
Lindt Classic Chocolate 100g All Flavours Reg.\$2.69 **Spe.\$1.99**
Lindor Singles 36g All Flavours Reg.\$23.25 **Spe.\$17.79**
Ricola Bag 75g All Flavours Reg.\$2.49 **Spe.\$1.89**
Ricola Sticks All Flavours Reg.\$27.69 **Spe.\$21.99**



Campbell's
Chunky Soup 540ml All Flavours Reg.\$3.05 **Spe.\$2.15**
Habibant Soup 796ml All Flavours Reg.\$1.89 **Spe.\$1.79**



Mr. Noodles

Cups 12/64g All Flavours Reg.\$10.65 **Spe.\$9.65**
 Flats 24/85g All Flavours Reg.\$7.49 **Spe.\$6.99**
 Bowls 12/110g All Flavours Reg.\$15.69 **Spe.\$13.69**



Classico

Pasta Sauce 410-650ml All Flavours
 Reg.\$3.79 **Spe.\$2.19**



C.B Powell

Sugar Twin Packets 50's Reg.\$1.49 **Spe.\$1.39**
 Sugar Twin Packets 100's Reg.\$2.85 **Spe.\$2.59**



C.B Powell

Stagg Chili 425g
 All Flavours Reg.\$2.65 **Spe.\$2.35**



Fishermans Friend

Fishermans Friend 16's All Flavours
 Reg.\$23.99 **Spe.\$21.49**
 Fishermans Friend 24's All Flavours
 Reg.\$35.89 **Spe.\$32.49**



Nestle Purina

Beneful Dog Food 1.36~1.8kg All Flavours
 Reg.\$5.89 **Spe.\$5.35**
 Beneful Wet Dog Food 283g All Flavours
 Reg.\$2.25 **Spe.\$1.95**



Cascades

April Soft Bathroom Tissue 4's
 Reg.\$21.49 **Spe.\$18.99**
 Fiesta Paper Towel 2'S
 Reg.\$19.99 **Spe.\$17.99**

15¹⁹



Tampax

Regular 10's Reg.\$16.89 **Spe.\$15.19**
 Super 10's Reg.\$16.89 **Spe.\$15.19**
 Super Plus 10's Reg.\$16.89 **Spe.\$15.19**



M2

12" Vortex Angle Broom Reg.\$4.05 **Spe.\$3.69**
 Snap 2 Go Mop Handle Reg.\$7.39 **Spe.\$6.59**
 Bagged Cotton Mop 16oz/450g Reg.\$3.25 **Spe.\$2.99**
 24oz/650g Reg.\$4.39 **Spe.\$4.15**
 32oz/850g Reg.\$5.79 **Spe.\$5.49**



Always

Always Ultra Slender w/ Flexi-wings 18's	4.69	3.95
Always Ultra Regular Thin w/ Flexi Wings 10's	3.09	2.95
Always Ultra Overnight w/ Flexi Wings 14's	4.69	3.95
Always Ultra Regular w/ Flexi Wings 18's	4.69	3.95
Always Thin Ultra Long w/ Flexi wings 16's	4.69	3.95
Always Ultra Regular 22's	4.69	3.95
Always Thin Maxi Regular w/Flexi wings 10's	3.09	2.95
Always Ultra Thin Long w/ Flexi wings 14's	4.69	3.95
Always Ultra Thin Reg 16's	4.69	3.95
Always Ultra Thin Long 20's	4.69	3.95



West Mall Branch

169 The West Mall, Etobicoke
 T(416)867-1444 / F(416)789-5013

Business Hours

Mon. 06:30 - 17:00
 Tue. 06:30 - 17:00
 Wed. 06:30 - 17:00
 Thur. 06:30 - 17:00
 Fri. 06:30 - 17:00
 Sat. 06:30 - 16:00
 Sun. 11:00 - 17:00



OKBA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169 The West Mall, Etobicoke, ON. M9C 1C2 Tel(416)789-7891 Fax(416)789-7834